

### 자유학기제 현장돌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 양정중 ‘프로젝트 경제수업’

## “그레이트! 스투핏!” 가상 인물 재무설계하며 어려운 경제개념 익혀요



공공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왼쪽)과 공공계정에 모인 금액. 양정중 제공

“○○씨 5년 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60살에 은퇴할 것을 고려하면 저축은 필수입니다. 충동구매, 과시소비를 줄이고 지출관리를 통해 저축량을 늘려보세요”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냐고? 아니다. 서울 양정중의 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상인물을 상대로 재무 컨설팅을 하는 모습. 양정중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경제수업’을 통해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배웠다. 중1에겐 다소 어려운 경제수업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학생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수업으로 탈바꿈한 것.

이 수업을 기획한 김나영 사회 교사는 “경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생활 속 경제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며 자연스럽게 금융개념을 체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사의 수업은 2016년 교

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자료집: 금융 교육’에 실렸다. ‘프로젝트 경제수업’은 블록타임으로 묶인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6, 7교시에 총 18차시로 진행됐다. 이 수업은 △용돈관리 프로그램(2차시) △재무설계 컨설팅 프로젝트(7차시) △공공재와 세금 프로젝트(9차시)의 순서로 진행됐다.

### 저축, 기부… “용돈 관리는 내가 직접!”

1~2차시는 학생들이 용돈을 관리해보며 저축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 김교사는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하고, 비슷한 월급을 받았지만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며, 두 인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학생들은 두 사람의 차이를 고민하며 수입과 지출관리의 필요성을 자연스레 깨달았다. 이후 학생들은 ‘In&Out’ 게임을 실시했다. 이 게임은 학생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경제관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임. 우선 교실 바닥에 큰 네모칸을 그리고, 그 네모칸을 통장으로 간주한다. 학생 개개인은 특정 금액의 지폐 또는 동전 역할을 맡아 네모칸 안과 밖을 오가며 수입·지출의 흐름과 관계를 이해한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소득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출을 변화시키면 통장잔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며 돈을 모으려면 올바른 소비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얻은 교훈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용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비습관을 점검해 보도록 한 뒤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관리하도록 한 것. 학생들은 준비물 구입비, 교통비, 의류비, 간식비 등으로 항목을 나눈 뒤 중요도를 고려해 용돈을 관리하며 자신의 소비습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용돈을 저축하면서 고정 지출과 예비비 개념도 이해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저축과 기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계획적인 소비를 하며 자신의 용돈으로 적금도 들고, 기부도 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학문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 경제지식 쑥쑥 키워주는 가상 재무설계

3~9차시에 학생들은 TV 프로그램의 재무설계 전문가처럼 가상인물의 재무설계를 해주는 활동을 진행했다. 4~5인이 한 조가 되어 가상 의뢰인의 소비패턴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재무설계를 하는 것.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재무설계를 할 때는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함을 배웠다. 한 학생은 가상 의뢰인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빚만 만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소비습관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교사는 “의뢰인이 만약 은퇴해 회사를 관두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해 학생들이 미래까지 고려해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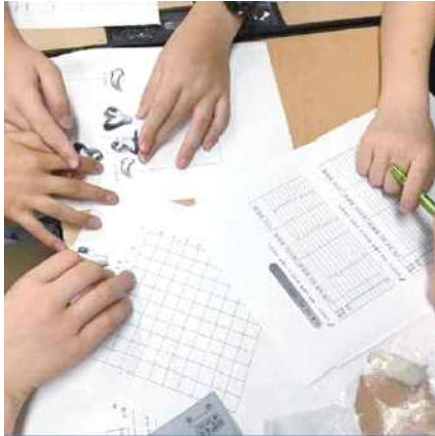
김 교사는 “학생들은 의뢰인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며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며 “팀원과 함께 생각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심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공익 위해 갖출 민주시민의 자세도 배운다

10~18차시에는 공공재와 세금의 성격을 살펴보는 세금, 공공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세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역의 시민이 되어, 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특징과 인구 구성과 같은 가상의 자료, 가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다채롭게 살펴보며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가상의 시설물을 설치할지를 고민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배운 학생들은 국가가 세금을 왜 걷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김 교사는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돈을 내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공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공공재 프로젝트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지를 고민하는 프로젝트.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임에 참여했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1000원을 나눠주고, 복도에 따로 설치해둔 ‘공공계정 박스’에 자유롭게 돈을 넣도록 했다. 이후 공공계정 박스에 모인 돈을 다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만 하다보면 공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학생들은 깨닫는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게임 후에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며 “공공계정에 돈을 내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려 모두에게 손해가 됨을 이해하면서 시민성도 함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In&Out’ 게임을 실시한 후 수입-지출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학생들. 양정중 제공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mailto:hj_kim86@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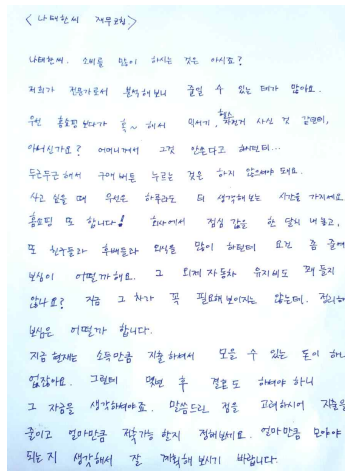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경제문제 해결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협동심 길러요!

‘프로젝트 경제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용돈관리 프로그램 △재무설계 컨설팅 프로젝트 △공공재와 세금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 교사는 “기계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지를 푸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수업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며 진정한 학습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경제수업’을 이끈 김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mailto:hj_kim86@donga.com)



가상인물의 재무설계를 위해 토의 중인 양정중 학생들/양정중 학생들이 가상인물에게 내린 재무설계 내용. 양정중 제공

### Q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대다수 학생들은 경제를 어려워하고, 경제학습의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학습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제와 관련된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학생들이 완벽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지 못하더라도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며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 Q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뻣뻣하게 짜여진 학원 스케줄과 기계적인 반복 학습으로 과부하에 걸려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기 귀찮아했으며, 지식을 소화하기 쉽게 떠먹여주는 학습방식에 익숙해 문제를 제시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질문을 건네며 긴장감을 풀어준 뒤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만약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갖고 있으나 실행방법을 모르는 경우, 답을 가르쳐주기보다 필요한 도구나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 Q 수업의 효과는?

처음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귀찮아하던 학생들이 점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교사가 제공한 가상 인물의 시나리오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넣어 내용을 각색한 뒤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했다.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확장해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자료탐색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문제 풀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해 기계적인 암기 학습을 한다. 하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친구와 대화하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깊이 탐구하는 자세도 갖게 됐다.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 교사

##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 “학생별로 성취수준을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달리해 적절한 피드백 제공”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학생들이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지 카드 등을 이용해 가장 맘에 드는 카드를 골라보고 그 카드가 왜 좋은지 자신의 마음을 친구와 이야기하며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의 상황에 적절히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도록 학생들의 관심사를 유심히 관찰해 동기부여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설계해보는 것이다. 동기가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찾고 탐구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 학생들의 부족한 경제개념을 보완하려면?

경제실험과 게임 등을 진행한 후 해당 활동에서 경제 이론을 도출한 뒤 교사가 간단히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경제 지식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하면 좋으나 이 경우 잘못된 개념을 올바른 것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니 강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둠 편성 시 학생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 수업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므로, 조에 한두 명씩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춘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에 유용한 사이트를 안내하는데, 신뢰도가 높은 원자료를 갖춘 통계청 등의 홈페이지를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서 학생에게 배부하고 자연스럽게 읽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제언

모든 학생이 같은 성취수준을 이룰 수 없다. 학생들은 모두 각각의 장점과 역량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세심하게 관찰해 그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모둠원 간의 서로 다른 재능(장점)을 발견하고, 협업의 의미를 깨닫게 하면 좋겠다.

또한 수업의 평가 방식은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물이나 발표 등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면, 똑똑한 친구들끼리만 모둠을 구성하고 싶어하고 “재는 무임승차해서 같은 조 안 할래요”라고 말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도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 평가하기보다 △학생 개인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했는가 △문제에 얼마나 몰입하며 호기심을 가졌는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찰하고 학생 특성에 맞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